

2013 한국광고주대회



국내 주요 광고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고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2013 한국광고주대회'가 지난 10월 24일 조선포털 오키드룸&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특별 세미나'와 '광고주의 밤 KAA Awards 시상식' 등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2001년부터 'Free Markets, Free Communication, Free Choice'를 슬로건으로 국민들에게 기업의 역할과 광고의 중요성을 알려온 한국광고주대회는 국내 주요 기업의 광고주를 비롯한 매체사, 광고대행사, 학계, 정부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 특별 세미나

2013 KAA 미디어 리서치, 2014 매체시장 전망 등 실용적 주제로 꾸며져

2013 한국광고주대회 '특별 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제1주제 '2013 KAA 미디어 리서치'에서는 업계 최초로 TV, 인터넷, 모바일을 동시에 이용하는 3스크린(TV-PC-스마트폰) 통합 플랫폼 이용행태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발표는 조사를 수행한 TNmS 민경숙 대표가 맡았다.

제2주제 '2014년 매체시장 전망 및 미디어믹스 전략'에서는 황학익 제일기획 미디어디자인팀 팀장이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 분석과 내년도 미디어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제3주제 '10조 시장, 우리 광고산업의 위기와 해법'에서는 서범석 세명대 교수가 우리 광고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국내 광고시장이 경기불황의 장기화와 매출 감소, 광고·마케팅 비용 축소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정책적 혼란, 과도한 광고시장 규제와 간섭, 일부 인터넷유사언론의 광고 강요 등으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고시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으로 국내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탈출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범석 교수는 이를 위해 식음료, 유통, 제약 등 업종별 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방송광고의 총량제 및 중간광고 도입, 그리고 간접광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 협찬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인터넷유사언론 행위 근절을 통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광고주의 밤

KAA Awards 시상식

‘광고주의 밤’ 행사는 오후 6시 이정치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은 어느 때보다 광고주·대행사·매체사 등 광고주체들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하며 “광고주협회는 앞으로도 광고산업의 선순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KAA Awards 시상식’에서는 국내 광고산업 발전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해 각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공로자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을 비롯하여, 방송프로그램상, 신문기획상, 모델상 등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먼저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에는 SBS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드라마 부문)과 MBC의 일밤(연예오락 부문), 그리고 KBS의 비타민(보도교양 부문)이 각각 선정됐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시청률이 높으면서 광고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국광고주협회 회원사들의 투표와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2013년 ‘광고주가 뽑은 좋은 신문기획상’에는 동아일보의 ‘한국기업에 다시 날개를’, 서울경제신문의 ‘기업가 정신이 창조경제 만든다’, 문화일보의 ‘착한경제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다’ 시리즈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독창적인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자유시장경제의 올바른 인식 제고 및 기업이 정신 고취,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사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광고주가 뽑은 좋은 신문기획상’은 총 70여 편의 후보작 가운데, 1차 예심과, 광고주협회 심사소위원회의 2차 심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의 3차 본심을 통해 선정됐다. 이날 수상자로 연



- 1
- 2
- 3
- 4
- 5
- 6
- 7

1 개회사를 전하는 이정치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2 특별 세미나 인사말을 전하는 임호균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 3 1주제 발표를 하는 민경숙 TNmS 대표 4 2주제 발표를 하는 황학익 제일기획 미디어디자인팀장 5 3주제 발표를 하는 서범석 세명대 교수 6 경과보고를 전하는 박정규 운영위원장(동서식품 부사장) 7 참석자들을 환대하는 이정치 회장과 운영위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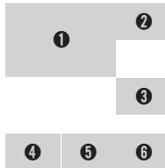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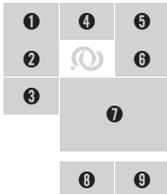
단에 오른 동아일보 김상철 산업부장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사정이 어렵다. 그런데 정부는 일자리 늘려라, 투자 늘려라 하며 많은 일을 하라고 한다. 일반 국민들은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기업이 업살을 부린다고 생각한다. 이번 수상한 기획기사는 30대 그룹의 현장에서 실제 사정을 들어가며 “업살이 아니고 정말 아프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기업이 잘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되는 길이고, 국민이 잘되는 길이다. 앞으로도 동아일보는 귀를 열고 기업 의견을 잘 들어서 언론을 통해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발표했다.

이어진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 시상에서는 배우 류승룡과 가수이자 연기자로 활약중인 수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은 기업의 제품 판매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모델, 소비자 호응도와 친화력이 높으면서 프로정신이 투철한 모델, 광고 외적인 면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모델을 대상으로 한국광고주협회 회원사를 비롯한 200대 광고주의 투표를 통해 총 3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류승룡 씨는 마초적이면서도 코믹한 이미지로 LG 침구킹, 일동제약 메디폼, 삼성생명 라이프디자인2.0 캠페인, 대상 청정원 카레 여왕, 팔도 남자라면 등에 출연하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여자부문 좋은 모델로 선정된 수지 씨는 삼성 갤럭시팝, 제일모직 빈폴, 농심 수미칩, 광동제약 비타500, 도미노피자 등에 출연하며 최고의



① 기념촬영을 하는 이정치 회장과 모델상 수상자 수지 ②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 수상자 류승룡 ③ 수상소감을 전하는 수지 ④ 광고주가 뽑은 좋은 신문기획상을 수상한 동아일보 김상철 산업부장(우)이 노승만 홍보위원장(삼성 전무)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⑤ 신문기획상 수상자 서울경제 문성진 산업부장 ⑥ 신문기획상 수상자 문화일보 박민 사회부장





1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SBS 이용석 팀장 2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MBC 권석 CP 3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KBS 박정미 PD 4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을 수상한 정병철 前회장 이 수상소감을 전하고 있다. 5 경품추첨을 하는 주황 대상 전무 6 경품추첨을 하는 정광열 삼성 전자 상무 7 아시아나 항공권을 협찬해준 조영석 금호아시아나 상무와 경품당첨자 이후성 빙그레 대리 8 9 축하공연을 해준 씨스타와 포미닛



전성기를 맞고 있다. 광동계약 관계자는 “광고계에선 ‘수지만 잘 써도 수지맞는다’는 말이 생길 정도”라며 “모델로서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호감도, 광고 호감도 등 광고효과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올해 KAA Awards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에는 정병철 前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이 선정됐다.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은 광고주의 권의 보호와 광고의 자유 신장, 그리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인을 선정, 시상하는 제도이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정병철 회장은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3년간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ABC부수공사 실현, KAA 미디어 리서치 조사 공개, 반론보도닷컴 개설 등을 통해 광고주의 권의 보호와 국내 광고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로 13주년을 맞는 2013 한국광고주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고인 잔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AA**